2022년 8월 8일

Economist 김효진
02-6114-2996 hjin.kim@kbfg.com
연구원 여주원
02-6114-2997 juwon_yeo@kbfg.com

더 많은 리포트 보기

KB Macro

7월 미국 물가, 4월에서 찾은 단서

전월비 0.2% 상승에 몰려 있는 미국 물가 예상치

팬데믹 이후 미국 소비자물가는 전월비 -0.8%부터 1.3%까지 온탕과 냉탕을 오갔다. 극심한 변동만큼이나 월가의 전망치가 비껴가는 경우도 많았는데, 월가는 7월 미국 소비자물가가 전월비 0.2% 상승에 그쳤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6월 미국 물가가 전월비 1.3% 상승에서 0.2%로 상승폭이 크게 둔화되는 것과 함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예상이 몰려있다는 점이다. 전월비 0%에서 0.4%까지로 전망치의 편차가 매우 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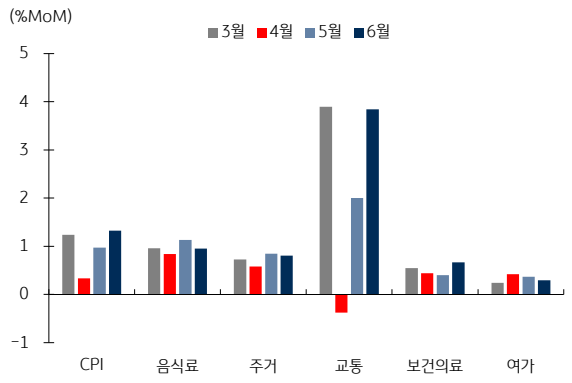
4월 물가를 꺼내 보면 단서가 있다. 이미 하락한 국제유가가 물가 둔화로 확인될 것

주거물가, 서비스물가 등 물가를 계속 끌어올리는 부분들이 있지만, 지난 몇달간 물가에 결정적이었던 것은 바로 교통, 즉 휘발유가격이었다. 월가의 물가 전망이 오랜만에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는 것 역시 지난 4월과 마찬가지로 국제유가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며 교통비가 전체 소비자물가를 1%p 가까이 끌어올렸던 3월과는 달리 4월 교통비는 전월비 하락하며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월비 0.3% 상승에 그치는데 기여한 바 있다. 7월 역시 주거 및 서비스물가 상승은 이어졌을 것이나 하락한 국제 유가가 전체 물가 상승 둔화로 확인될 것이다. 이미 지나간 7월 국제유가가 6월 대비 11.5% 하락했다.

전년비 물가는 3분기 내내 9% 내외에 머무를 것이나 전월비 상승 압력 낮아질 것. 물가에서 경기로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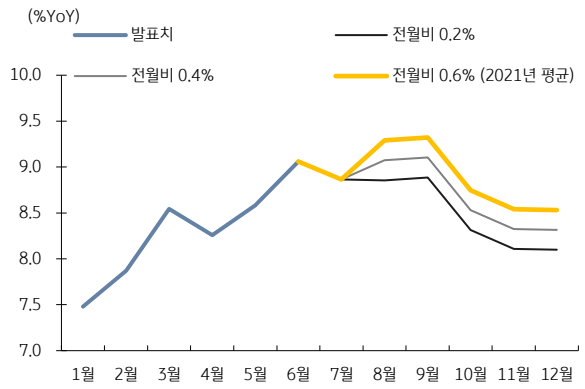
최근 국제유가는 배럴당 80달러 대로 진입하며 물가 상승이 추가로 둔화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국제유가 뿐 아니라 ISM지수에서 관찰되는 체감 가격도 빠르게 하락 중이다. 80 내외에 머물던 제조업과 서비스업 가격지수는 7월에 각각 60, 72.3으로 하락했다. 팬데믹 이후 ISM 가격지수와 소비자물가의 동행성이 약화되었지만, 기업들이 체감하는 가격 부담은 점차 완화되고 있다. 금융시장의 관심도 물가에서 경기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물가 역시 온전히 마음을 놓기는 어려운 환경이 이어질 것이다. 주거 물가가 이미 상승한 주택가격을 반영하며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며, 줄어들고 있는 소비 여력과 달리 서비스 물가 상승도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권희진, 6/13).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 후반으로 낮아질 것이나, 이미 미국 물가라는 눈덩이는 불어나 있어 조금만 굴려도 쉽게 커지는 모양으로 변했다. 국제유가가 상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8~9월 물가는 8% 후반~9% 내외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 소비자물가 세부항목 추이



자료: Bloomberg, KB증권

전월비 상승폭에 따른 미국 물가 경로



자료: CEIC, KB증권 추정
주: 7월 이후는 KB증권 전망

투자자 고지 사항

KB증권은 동 조사분석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와 그 배우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 작성자는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보고서는 고객들에게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계약의 청약 또는 청약의 유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KB증권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일 시점의 전문적인 판단을 반영한 의견이나 KB증권이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투자는 고객의 판단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 보고서는 여하한 형태로도 고객의 투자판단 및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의 저작권은 KB증권에 있으므로 KB증권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학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학술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KB증권에 사전 통보하여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